

05.18.2008 (주일)

비록 작고 좁고 적지만 (마 17:20)

에베레스트와 에릭 와이헨마이어 (Eric Weihenmayer). 하나는 8850 미터로 (5.5 마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또 하나는 그 산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에릭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세계적인 등산가 800 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눈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다가 14살 때 완전히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친데 덮친 격으로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에 어머니마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자 어쩔 수 없는 비운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부터 등산을 하게 됐고 그의 비운의 집념은 그로 하여금 하루에 50 마일을 자전거로 달리게 했고, 23 키로 (50 파운드)의 모래주머니 및 어깨에 짐을 걸어지고 덴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층계로 오르락 내리락하는데까지 가게 했습니다. 무서운 것을 모르는 집념과 노력의 결과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릭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집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해낸 것입니다. 최대한만큼 최소한도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축복, 최대한의 물질, 최대한의 성공을 바라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을 별로 탐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소한 것을 가지고 생명과 능력과 영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엡 4:3-6에 나와있는대로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1)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됩니다 (마 17:20).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 mm에 지나지 않는 겨자씨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자라남과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만을 붙잡고 역사할 때는 반드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경건한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고 믿음도 없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잠시 물질이나 평안을 가져도 얼마 못가서 다시 세상에 빼앗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으로 사는 한 세상의 환란을 이길 재간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빼앗겨 버리고 절망을 안겨 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럽고, 믿지 못하는 세상이 그럽습니다. 믿지 못하면 불안과 불만과 불가능입니다 (막 9:23).

(2)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눅 13:24). 마 7:13-14 볼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험악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좁을 '협' 좁을 '착' 그러니까 아주 좁디 좁은 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좁다는 개념은 자신을 비우는 언행을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이렇게 요 10:9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말하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 꼴을 얻습니다 (시 23:1-3).

겔 42장에 보면 성전 안에 방들이 나오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방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겔 42:5에 보니까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뜻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좁아짐이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비우는 즉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비우기까지는 수많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3) 적은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눅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포인트는 누구 보기에 크고 적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 보기에는 아말렉의 물질이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보였던 것입니다 (삼상 15:9). 선악과가 여자 보기에 먹음직했고, 보암직 했고 얼마나 탐스럽게 보였는지 꼭 가져야만 할 정도로 보였습니까 (창 3:6).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신앙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차여있기에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보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를 위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말씀의 세계는 작고 좁고 적습니다. 주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신 8:3). 나 하나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 작은 믿음으로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떤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